

상부상조 서울

고근호

2019년이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1년 여간 준비한 전시를 열었습니다. 3년 만에 여는 전시인데다 기간도 짧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직접 전시장을 지키는 날이 많아 관객 분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전시를 보고 나서 덕담을 건네 주셨습니다.

“사진 많이 올려드릴게요.”

좋은 마음으로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전시를 좋게 보셨다는 뜻이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순간적으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머뭇거렸습니다. 전시에 대한 감상보다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많이 올려 홍보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조금 의아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제 작업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요. 하지만 어딘가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마침 여러 동료가 제 아이디를 태그해 사진을 올려주는 일에 대해서도 복잡한 생각이 들고 있었거든요. 태그된 사진을 홍보 목적으로 다시 제 계정에 올리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스마트폰 사진으로 본 전시의 인상이 실제 관람 경험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뭔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전시 정보를 인스타그램에서 접하는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스토리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전시를 보러 갈지 말지를 결정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지겹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태그한 스토리가 올라오면, 그 태그된 사람이 또다시 같은 장면을 자신의 스토리에 공유하고... 그런 식의 홍보 순환을 매일같이 목격하게 되었으니까요. 바둑판처럼 정렬된 태그 장면들을 보다 보면 징그럽다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저 역시 이런 홍보의 굴레에서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전시를 열 때도, 볼 때도, 보고 나서도 인스타그램에 올라올 혹은 올릴 전시 사진들이 제 경험에 깊숙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항상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전시를 접했을 땐 뭐 다 상관 없었지만요.

인스타그램을 통과하여 바라본 서울 미술계의 풍경은, 어딘가 한국의 경조사 문화와 닮아 있는 듯했습니다. 상부상조... 서로가 서로의 홍보의 장을 자처하는 풍경이 꽤 자연스럽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술계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이러한 홍보의 순환은, 적어도 제가 경험하는 서울 미술계를 분명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시를 ‘어떻게’ 봤는지보다는, ‘봤다’는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전시 사진이 올라오는데도, 어떻게 봤는지에 대한 말은 보고 듣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이 보는 것이 중요한 역설적인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스토리에 사진이 많이 올라오는 전시는 흥한 전시처럼 보였습니다. 전시를 연 작가가 그 사진들을 바둑판처럼 리스토리하면, ‘오 전시가 성공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동료들과 전시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그 전시 많이 보더라”, “사진 많이 올라오더라” 같은 말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마주했던 썬의 풍경은 그리 행복하거나 재미있지는 않았습니 다.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가? 어떤 안온한 틀 안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었 거든요. 사진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이는 전시, 자기-프로모션을 위한(무엇을 위한?) 전시, 말 그대로 쾌적한 전시를 접하는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작가 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좀 이상한 것을 만들고, 또 그런 것을 봤을 때의 두근거림이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하는 서울에서는 그 감각이 얼마간 희미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두근거림은 언제,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전시를 여는 작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작업을 시작했을 때의 충동, 과정 속에서의 생각,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전달되었고 또 어떻게 빛나갔는지를 확인할 때 느껴지는 고양감, 좌절감, 투쟁심—그 모든 것이 두근거림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좋았어요.”라는 말과 함께 올라오는 사진, 그리고 어차피 24시간 뒤면 사라지는 스토리는 입 안에서 맴도는 응원의 말을 깔끔하게 압축하기에 편리하긴 합니다. 그런 말들은 순간적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서로에게 무언가를 남기기엔 그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시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좋은 점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점까지도요. 서로가 단지 다수 관객 중 한 명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전시를 많은 사람이 보러 오지 않더라도, 전시가 끝난 뒤 충분한 마음이 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활동을 홍보하고 정보를 얻는 일은 간편하고 쾌적합니다. 저 역시 그것을 거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마 이 글 또한 인스타그램에서 홍보될 것입니다. 장점이 분명하니까요. 많은 사람에게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 간편함과 쾌적함이, 마치 ‘하트’와 ‘공유 횟수’의 숫자가 전부인 것 같은 착시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두렵습니다. 전시를 열었는데 관련된 스토리가 올라오면 안도하게 되고, 반대로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는 불안해지는 그 감각이 두렵습니다. 전시가 끝난 뒤, 홍보와 확인의 쿨레에서 벗어나고 나면 찾아오는 그 답답함과 헛헛함, 다가올 공허함이 두렵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저는 어떤 공론장을 상상해 봅니다. 서로의 이해관계나 민망함을 잠시 내려두고, 다양한 말들이 자유롭게 쏟아질 수 있는 장소를 떠올려 봅니다. 그곳에서는 전시에 대한 소회와 감상을 글로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좋다’, ‘별로다’를 넘

어서, 그 이유에 관해 이야기하고, 좀 더 솔직한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커뮤니티로 기능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지난 십여 년간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얼마나 쉽게 폭력적이고 폐쇄적이며 정치적인 공간이 될 수 있는지를 목격해왔습니다. 저는 그 원인이, 유사한 성향을 가진 운영자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익명성 뒤에 숨어 폭력적인 발언을 방조하며, 특정 여론을 유도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하면서 동시에 책임을 나눠 지는, 일시적이고도 지속 가능한 공론장은 가능할까요? 그런 상상을 자꾸만 덧붙여 봅니다.

고근호는 천의 균열, 종이의 구겨짐과 같은 물리적 변형을 조건으로 삼고, 그에 응답하며 지형을 그리고 탐색하는 회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PCO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개인전 《굽이굽이》(2025), 《2》(2024), 《이리저리》(2024), 《조율하는 퍼즐》(2022)을 선보였고, 《6 Murals》(2025), 《Open Corridor》(2024), 《Rules》(2016)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